

- 예산 농요 ·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복지 환경 위원회]

목 차

| | |
|--------------------------|---|
| I. 총 평 | 1 |
| II. 주요 토론내용 | 2 |
| ① 주제발표(1인) | 2 |
| ② 지정토론(4인) | 3 |
| ③ 자유토론(참여자 전체) | 5 |
| ④ 청중토론 | 6 |
| ⑤ 마무리말씀 | 7 |
|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 8 |
|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8 |

- 예산 농요 ·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충청 예산지역의 향토문화인 농요와 두레풍장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대하여 도민, 공무원, 충남 농악인들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주요 논의제안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예산 농요 ·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민 · 관 · 학의 노력이 요구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3. 9. 21.(목), 14:00~16:30 / 충남도의회 303호 회의실
- 참 석 : 40여명(충남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예산 농요 · 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 신청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충남도민과 관계공무원, 예산 농악인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농요와 두레풍장 관련 예능인의 목소리를 듣고 충남 예산의 농요와 두레풍장의 현주소를 진단, 우리 전통 민속문화 예술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충남의 농악인, 충청남도, 충남도의회가 예산의 농요 · 두레풍장이 사라지지 않고 계승 ·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역 향토문화재뿐만 아니라 나아가 충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 하였으며,
- 현재 예산 농요와 두레풍장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타 지역의 우수 농요 및 두레풍장에 대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안함.
- 또한 예산 농요 · 두레풍장에 대한 고유한 악보집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한 체계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함.

- 앞으로, 충남 예산의 고유 민속예술인 “농요, 두레풍장” 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존 단체의 다양한 노력과 연습,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학계의 다양한 연구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노정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예산의 농요·두레풍장은 예산의 지역민과 함께 전해져 내려온 문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초자료를 찾아 형태를 복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즉, 근거를 알 수 없는 오염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복원과 구성이 필요하며, 자료의 진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함.
- 예산지역에서 불린 농요, 두레풍장은 예산지역민에게 먼저 돌아가 포용되어야 할 것인바, 당위성을 전제로 한 자료의 홍보와 저변확대가 필요함.
- 계승자를 발굴·육성해야 함. 가계로 이어져 내려온 계승자가 발굴되지 않더라도, 예산의 농요와 두레풍장의 각 악기에 능통한 전문인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위한 학습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지역의 초등학교와 지자체 산하기관, 각 마을 회관 등에서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정받는 문화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건을 찾아 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문화유산의 발굴, 개발, 보존, 계승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도 없다. 이에 선부른 도전 보다는 선조들의 문화가 버려지거나 잊히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외침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2] 지정토론(4인)

① 정용곡 (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 ‘두레풍장’은 농촌에서 일할 때 어려움과 능률을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이동할 때면 흥겹게 놀아대면서 한숨을 돌리는 쉼터 역할을 하던 전통예술로, 예전에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가락으로 놀아대던 풍장이지만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옛 전통 문화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
-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게 두레풍장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 단, 고유한 전통문화예술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두레풍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예술인 옛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학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자체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이영덕 (향천사 풍물단 단장)

- 현재 두레풍장은 그 저변이 점점 좁아지고 위축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예산 풍물에 대하여 가락보가 정리되어 악보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예산지역 마을단위 두레풍장 가락 채보집 발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임.

③ 윤철현 (매헌윤봉길월진회 부회장)

- 특히 예산의 두레풍장이 보존 계승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두레풍장을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가치를 지역민들에게 재인식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학계-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
- 충남에는 귀족중심의 백제문화와 서민중심의 내포문화가 있다고 생각함. 오늘의 주제인 ‘두레풍장’은 크게 내포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예산의 농요·두레풍장을 예산 향토 문화재와 도 무형문화재로 순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기를 바램.
- 오늘 특히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에 우리 부원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통 음악을 좀 활용해서 우리 충남의 어린이의 인성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것으로 판단됨

④ 김소영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주무관)

- 오늘 발제는 예산의 두레풍장·농요가 지역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계속해서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 했음.
- 발제 내용을 보면 아직 예산 두레풍장·농요보존회나 문화재 지정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보존회나 위원회가 결성된다면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조언을 부탁하고, 예산 두레풍장·농요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보존회나 준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행정 지원도 가능함.

- 이후에는 이미 결성된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활동을 찾아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벤치마킹이 필요함.
- 다양한 학술대회 개최로 문화예술로서 진정한 모습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며, 홍보와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 농요와 두레풍장의 전승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보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보존회나 위원회 차원의 계승자 뿐만아니라 전수자나 이수자를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행정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대중성 확보, 홍보등의 지원이 가능하나, 예산의 한계로 지자체별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게 현실임. 이에 보존회가 만들어진다면 단체의 제도권화 내에서 매년 일정규모의 꾸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 주시길 바람.
- 전통 예술의 발굴, 개발, 보존, 계승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 그래서 개인과 단체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통 예술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고 추후에도 전통 예술에 협력할 사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음.

3 자유토론

- 발제 내용 중 예산의 두레풍장이 당위성을 근거로 문화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대적 기준은 1985년 한국구비문학대계와 1993년 MBC 충남편 민요대전의 채록된 소리를 기준으로 재현을 하면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에 있는 ‘용대기 놀이’ 를 두레풍장에

접목하였을 경우 무형문화재지정이나 향토문화재 지정에 있어
가산요인이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함

[질문 : 윤철현 매헌윤봉길월진회 부회장]

- 제가 이번에 참고로 삼은 자료가 구비문학대계와 MBC민요대전
충남편이긴 한데... 현재 있는 것 이외에 더 발굴되지 않고
다른 음악적 근거를 찾아봐도 이게 맞겠다고 판단됨. 또한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검증을 받으면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답변 : 노정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용대기’ 놀이의 접목과 관련하여서는 ‘용대기’ 자체가 농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있겠지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민속예술제에서
가산점을 받을지는 대회 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면
좋은 것으로 사료됨.

[답변 : 노정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4 청중토론

- 예산농악보존회에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예산 지역의 농요와
두레풍장을 발굴·계승하여 내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대표로
전국 민속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준비과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회장님이 마을 단위로 방문하여 두레풍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당시 그 가락을 채보해서 문서화시켜 놓은게
있는지도 궁금함.

[질의 : 이영덕 향천사 풍물단장]

- 올해 한국민족예술제에 저희가 이번에 신청했으나 떨어져서
아쉬움. 이에 원인 분석으로 여러 박사님의 자문을 구한 결과

예산 두레풍장에 대한 채보집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음.

- 이에 앞으로 예산 농요 및 두레풍장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며, 얼마전 4개 마을에 대한 두레풍장 음원 발굴을 마쳐, 정간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음.

[답변 : 구락서 예산농악보존회 회장]

- 올해는 대회에 탈락이 되고 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음. 내년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에 꼭 출전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겠지만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또한 민속문화예술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남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 민속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람.

[의견 : 구락서 예산농악보존회 회장]

5] 마무리 말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도 잘 몰랐던 농요와 두레풍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좋은 공부가 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낌.
- 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용역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농요와 두레풍장에 대한 전문가의 고증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 민속예술문화 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것임.

[마무리발언 : 방한일 /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예산 두레풍장·농요보존회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등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대표단체 부재.
- 우리 지역 농요와 두레풍장 계승·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부재.
- 지역 민속문화예술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부재.

<결 과>

- 지역 농악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예산 농요·두레풍장의 구심점이 되는 보존회, 준비위원회 등 단체를 설립·지정하여 행정과 논의 필요.
- 우리 지역 농요와 두레풍장의 정간보 발행, 악보 제작 등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용역 필요.
- 지역민에게 민속문화예술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및 타 우수지역 사례 벤치마킹, 도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인사말씀(방한일 의원)



축사(김응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축사(주진하 충남도의원)



행사진행(토론모습)



발제자(노정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참석자 기념촬영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 연번 | 언론사명 | 제목(50건) | 비고 (보도일자등) |
|----------|-----------|----------------------------------|---------------|
| 인터넷.통신보도 | | 49건 | |
| 1 | 신아일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23.09.21 |
| 2 | 충남신문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 | 뉴스티앤티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모색 | " |
| 4 | 국제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5 | 충청메시지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6 | 뉴스밴드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7 | 프레스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8 | 내외일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9 | 검경일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0 | C뉴스041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1 | 서산시대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2 | 미디어타임즈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3 | 충남도민일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4 | 정필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5 | 골든타임즈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6 | 드림지원센터미디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7 | 성남신문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8 | 백제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19 | 충남일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20 | 뉴스투나잇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21 | 뉴스체인지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22 | 미디어이슈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23 | 명성일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 | | |
|-------------|---------|--|--------------------|
| 24 | 경인굿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23.09.21 |
| 25 | 중앙뉴스미디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26 | 중부시사신문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27 | 세종nTV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28 | 세계타임즈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29 | KSPnews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0 | 미디어투데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1 | 충남인터넷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2 | 로컬경기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3 | 신한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4 | 특급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5 | sbn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6 | 누리일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7 | 충남신문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8 | 경인투데이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39 | 세종방송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0 | 더시그널뉴스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1 | 뉴스썸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2 | 에너지경제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3 | 코리아닷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4 | 뉴스충청인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5 | 경기인터넷신문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6 | 문화매일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7 | 시사일보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23.09.21 |
| 48 | NWS내외방송 |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 " |
| 49 | 아시아투데이 | 충남도의회, '예산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 " |
| 지면보도 | | 1건 | |
| 50 | 투데이충남 | '농요·두레풍장'발전 강구 | '23.09.22 종합02면 |

‘농요·두레풍장’ 발전 강구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2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 예산지역의 민속예술인 ‘농요와 두레풍장’ 계승·발전을 위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정웅곡 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이영덕 향천사 단장, 그리고 윤철현 매헌윤봉길월진회 부회장도 “조상들이 남겨주신 훌륭하고 귀중한 ‘풍장’이라는 문화유산이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학계·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도 문화정책과 고속영 팀장도 “두레풍장·농요의 진흥을 위해 세미나, 기록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홍보나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보존회나 위원회 차원의 계승자 확보와 관리가 이루어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민족문화와 지역의 전통성을 지켜내는 것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예산 농요과 두레풍장의 계승·발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내포/이예슬 기자

(6.9*19.0)cm

충남도의회 향토문화유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강구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 예산 지역의 민속에 숨인 '농요와 두레풍장' 계승·발전을 위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노정숙 박사는 "예산은 지역적으로 충남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야가 넓고 쌀·보리 등의 농사가 발달해 자연스럽게 농사와 관련된 농요, 두레풍장과 같은 향토적인 노래와 놀이문화가 공존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두레풍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그에 반해 농요에 대한 연구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두레풍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농요와 함께 연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웅곡 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이영덕 향천사 단장, 윤철현 매헌윤봉길월진회 부회장도 "조상들이 남겨주신 훌륭한 '풍장'이라는 문화유산이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학계·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도 문화정책과 고숙영 팀장도 "두레풍장?농요의 진흥을 위해 세미나, 기록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홍보나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보존회나 위원회 차원의 계승자 확보와 관리가 이루어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방한일 의원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민족문화와 지역의 전통성을 지켜내는 것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준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예산 농요과 두레풍장의 계승·발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명균 기자 woomk22@daum.net